■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91-223.
http://doi.org/10.17948/kcs.2022..96.191

대몽항전을 통해 본 김윤후의 대몽전략과 리더십

강재광(姜在光)*

목 차

1. 머리말
2. 1232년(고종 19) 處仁城전투 승첩과 김윤후의 리더십
3. 1253년(고종 40) 忠州城전투 승첩과 김윤후의 리더십
4. 1259년(고종 46) 寒溪山城・泉谷村전투 승첩과 김윤후의 리더십
5. 맺음말—김윤후 리더십의 현대적 조명—

국문초록

백현원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후는 1232년(고종 19) 처인성전투에서 승병장 역할을 자임하면서 처인부곡민과 승도를 통괄 지휘하고 궁수 부대를 통한 정확한 조준사격을 통해 몽골군 원수 살례탑을 사살하였다. 충주성전투에서는 방호별감으로서 관노 문서를 불사르고 신분해방을 약속하는 등 충주민의 전투의지를 고양시켜, 몽골군 총사령관 야고 대왕이 직접 지휘하는 몽골군 본진을 70여 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물리쳤다. 1259년(고종 46)에는 동북면병마사로서 한계산성전투・천곡촌전투에 강도에서 급파된 별초 3,000 병력을 적시에 나눠보내 한계산성방호별감 안홍민이 몽골군을 격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 책임연구원.

이러한 대몽항전에서 보여준 김윤후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위대한 전공을 쌓았음에도 높은 관직을 탐하지 않고 낮은 관직에 상당기간 머무르면서 청렴결백한 성품을 보여주었다. 둘째, 신분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귀천을 막론하고 능력있는 자들을 전투에 적극 활용하였고 전공을 세운 자들을 포상하였다. 셋째, 대몽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몸소 실행에 옮기는 군사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넷째, 무인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오로지 고려왕조의 부흥과 대몽전쟁의 종식, 민생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주제어: 대몽항전, 김윤후, 처인성전투, 충주성전투, 한계산성전투, 방호별감, 삼별초, 리더십.

1. 머리말

대몽전쟁은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거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軍・官・民이 협력하여 이민족 몽골에 줄기차게 항전한 전쟁이었다.[1] 이 전쟁은 세계제국 몽골에 맞서 30년 가까이 항전했으며[2] 고려가 멸망당하지 않고 외양상 독립국 형태를 유지하면서 몽골에 복속되어 원간섭기[3](혹은 몽골[원]복속기[4])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1) 지금까지 고려시대사 학계에서 발표된 對蒙戰爭(麗蒙戰爭)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柳在城, 『對蒙抗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尹龍爀, 『高麗對蒙抗爭史硏究』, 一志社, 1991;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경인문화사, 2011; 김호준, 『고려 대몽항쟁과 축성』, 서경문화사, 2017.

2) 對蒙戰爭은 몽골군 元帥 撒禮塔이 咸新鎭을 공격하였던 1231년(고종 18) 8월부터 太子親朝가 실행되었던 1259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대몽전쟁은 기간으로 따지면 27년 8개월에 해당하고, 햇수(연차)로 따지면 29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순수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은 휴전기간만 총 16년에 달하여 전체 대몽전쟁 28년의 절반이 넘는다는 견해가 있다(이익주, 「고려-몽골 전쟁 초기(1231-1232)의 강화 협상 연구」, 『韓國史硏究』 180, 한국사연구회, 2018, 1-2면 각주2 참조).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에도 麗・蒙 사이에서 '六事' 이행을 둘러싼 외교전이 첨예하게 지속되었고 압록강 국경 일대에서는 몽골군이 무력시위를 하거나 국경을 넘어와서 약탈을 일삼는 등 긴장관계가 줄곧 유지되었다.

3) 고려시대사 학계에서 김광철・김당택・민현구・박종기・이익주・채웅석 등은 對蒙戰爭 이후 몽골에 복속된 시기를 元干涉期라 명명하였다(김광철, 『원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정치』, 경인문화사, 2018; 金塘澤, 「元干涉期 高麗 國王의 入元經費(盤纏)에 대하여」, 『吉玄益敎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민현구, 『高麗政治史論』, 고려대출판부, 2004; 박종기, 「원간섭기 사회현실과 개혁론의 전개」, 『역사와 현실』 49, 한국역사연구회, 2003; 이익주, 「원간섭기 개혁정치의 성격」,

측면에서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다. 대몽전쟁 이후 고려가 몽골에 복속되어 관제를 황제국 체제에서 제후국 체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제후국 체제는 조선시대에 고스란히 계승되었으므로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자주'와 '사대'라는 거대 담론에서 '자주'의 시대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대몽전쟁 최대 승첩을 꼽으라면 단연 1232년(고종 19)의 處仁城전투를 거론할 수 있다. 처인성전투에서 僧兵將 김윤후[5]의 전투지휘로 적장 撒禮塔[6]이 사살되었으며,[7]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잃은 몽골군은 허둥대면서 철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몽골군이 대외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전사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 바로 처인성전투가 몽골의 대외원정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패전이었던 것이다. 처인성 승첩으로 강화도로 遷都를 단행한 고려 조정이 강화도에 城을 쌓고 海島入保策에 의거한 장기항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8] 이후 김윤후는 防護別監으로 충주에 파견되어 忠州城전투에서 몽골 憲宗의 숙부였던 也古[9] 대왕이 거느린 몽골군을 물리쳤다.[10] 충주성 승첩으로 몽골군은 계립령을 넘어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였고 高宗 親朝 대신에 太子親朝 등을 조건으로 하여 對蒙講和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글은 대몽전쟁의 영웅인 승병장 김윤후의 대몽전략을 고찰해보고, 그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고려인을 단합시켜 몽골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에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한국역사연구회, 2003). 원간섭기라는 명칭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4) 고려시대사 학계에서 소장파 학자를 중심으로 '元干涉期'라는 용어보다 '몽골(元) 服屬期'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5) 處仁城 전투의 영웅 김윤후의 한자 성명은 『高麗史』 世家에서는 金允候로, 列傳에서는 金允侯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6) 撒禮塔은 살리타이(Salitai), 사르타이(Sartai), 사르탁(Sartaq) 등 다양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이글에서는 한자 원문대로 '撒禮塔'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7)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및 『高麗史節要』권16, 高宗 19년 9월 참조.

8) 尹龍爀,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특히 廣州民과 處仁部曲民의 抗戰에 주목하여—」, 『韓國史研究』 29, 한국사연구회, 1980.

9) 몽골 황제 憲宗의 叔父였던 也古는 『高麗史』에서 也窟로도 기록되어 있다.

10)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및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0년 12월 참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처인성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로 處仁部曲民과 승도의 단합된 전투력 발휘에 주목하여 승병장 김윤후가 어떻게 처인성에 입보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처인부곡민·승군을 지휘했는지에 대해서 추론해보고자 한다. 처인성 승첩 이후 江都에 소환된 김윤후의 발언을 통해서 그가 몽골군의 지휘부를 노렸던 궁수 부대를 통솔하여 집중 조준사격을 지휘했을 개연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충주산성방호별감으로 파견된 김윤후가 충주성전투에서 70일 넘게 몽골군을 방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를 그의 리더십과 충주민의 항전 역량을 연관 지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방호별감 김윤후가 충주성 함락 위기 직전에 전통시대 신분제도를 의식하지 않고 官奴 문서를 불사르고 몽골군에게 노획한 소와 말을 하층민에게 나눠주는 극적인 장면의 연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공구해보도록 한다. 김윤후가 평상시 왕조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충주민의 전투의지를 최대한 고양시켰던 측면을 통해서 그가 구사한 리더십의 실체를 정밀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대몽전쟁 말엽인 1259년(고종 46) 1월에 東北面兵馬使에 임명된 김윤후가 任地인 安邊都護府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도[11] 東界·交州道의 어느 據點城에 머무르면서 1259년 1월에 동계 방면으로 급파되었던 別抄 3,000의 대몽전투를 총괄 지휘했을 개연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그 당시는 동계 방면이 雙城摠管府의 投蒙高麗軍民과 몽골군·東眞軍에게 무너지고 있던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동북면병마사 김윤후가 임지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강도로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동북면병마사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1259년 2월의 寒溪山城전투 및 3월의 泉谷村전투에 김윤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의 리더십 발휘에 초점을 맞춰 고찰해보고자 한다.

맺음말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김윤후의 대몽항전과 리더십의 특징을

11)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前略) 出爲東北面兵馬使, 時東北面, 已沒於蒙古, 故不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대몽전쟁사에서 김윤후가 펼친 리더십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2. 1232년(고종 19) 處仁城전투 승첩과 김윤후의 리더십

대몽전쟁 초기 최대의 승첩이었던 처인성전투는『高麗史』등에서 그 내용이 소략하게나마 전하고 있다. 처인성전투에 관련된 사서의 내용이 극히 소략한 것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處仁部曲에서 전투가 발발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처인성전투에 관한 국내외 사료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A-1. 撒禮塔이 處仁城을 공격하였다. 승려 한 사람이 병란을 피하여 성안에 있다가 화살을 쏘아 살례탑을 죽였다.(『高麗史』권23, 高宗 19년 12월)[12]

A-2. 東眞國에 대답하는 글에 말하기를, (…) 금년(고종 19년, 1232년) 12월 16일에 이르러 水州에 속한 고을인 處仁部曲의 작은 성에서 바야흐로 적과 싸우려고 마주하여 화살을 쏘아 적군의 괴수 살례탑을 명중시켜 그를 죽이고, 포로로 잡은 것도 역시 많았으며, 나머지 무리들은 무너져 흩어졌다.(『高麗史』 권23, 高宗 19년 12월「答東眞書」)[13]

A-3. 김윤후는 고종 때 사람이다. 그때 중이 되어 白峴院에 머물다가 몽골군이 오자 김윤후는 처인성에서 난리를 피하였다. 몽골의 원수 살례탑이 와서 성을 공격하니 김윤후가 그를 쏘아 죽였다. 왕은 그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上將軍 벼슬을 주었다. 김윤후는 다른 사람에게 공을 양보하여 말하기를 "싸울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헛되게 많은 상을 받겠는가."하고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攝郎將의 벼슬로 고쳐주었다.(『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14]

A-4. 살례탑이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한 승려가 전쟁을 피하여 성 안에 있었는데, 살례탑을 쏘아 죽였다. 국가에서 그 전공을 칭찬하여 상장군을 주었다. 승려가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전투할 때에 나는 활과 화살

12)『高麗史』권23, 高宗 19년 12월,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之."

13)『高麗史』권23, 高宗 19년 12월「答東眞書」, "答東眞書曰, 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14)『高麗史』권103, 列傳16, 金允侯, "金允侯, 高宗時人. 嘗爲僧, 住白峴院, 蒙古兵至, 允侯避亂于處仁城. 蒙古元帥撒禮塔來攻城, 允侯射殺之. 王嘉其功, 授上將軍. 允侯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虛受重賞. 固辭不受, 乃改攝郎將."

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공 없이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라고 하고 굳게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이에 섭낭장을 제수하였다. 승려는 바로 김윤후이다.(『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9년 9월)[15]

A-5. 고려 고종 때 강화로 도읍을 옮기니 원나라 황제가 노하여 죄상을 묻는 군대를 보내었는데, 몽골군 원수 撒歹이 고려의 御史雜端 薛愼을 군중에 묶어 데리고 松京에 이르러, 장차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려 하였다. 설신이 살알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른 나라의 높은 관리가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길하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살알이 듣지 않고 漢陽山城에 다다라 그곳을 함락시키고 다음에 처인성에 이르렀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명중되어 죽었다. 元兵이 회군하여 송경에 이르러서야 말하기를 "설신은 지혜와 식견이 있다."라고 하고 강화로 들여보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道 龍仁縣 古跡 處仁城)[16]

A-6. 살례탑이 다시 고려를 정벌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元史』권2, 本紀 太宗 4년 8월)[17]

A-7. 임진년 가을 8월, 태종이 다시 살례탑을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토벌하게 하자, 洪福源이 소속 부를 모두 거느리고 함께 고려를 공격하였는데, 왕경 처인성에 이르러 살례탑이 화살에 맞아 죽으니 그 부장 帖哥는 병사를 거느리고 돌아가고 오직 홍복원만이 남아서 진을 쳤다.(『元史』 권154, 열전41, 洪福源)[18]

A-8. (태종 4년) 8월에 다시 살례탑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왕경 남쪽에 이르러 그 처인성을 공격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別將 鐵哥가 군대를 데리고 돌아왔다.(『元史』 권208, 列傳95, 外夷1, 高麗)[19]

A-9. 태종이 다시 살례탑을 보내어 고려를 토벌하였다. 홍복원이 대군을 따라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살례탑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으니 부장 첩가가 병사를 거느리고 돌아왔다. 홍복원이 남아서 주둔하였다.(『新元史』 권176, 列傳73, 洪福源)[20]

---

15)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9년 9월,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撒禮塔. 國家嘉其功, 授上將軍. 僧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虛受重賞. 固辭不受. 乃拜攝郎將. 僧卽金允侯也."

1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道 龍仁縣 古跡 處仁城, "(前略) 高麗高宗時 遷都江華 元帝怒 遣兵問狀. 元帥撒歹 縶御史雜端薛愼於軍中 到松京 將渡江南下. 愼謂撒歹曰 國諺有之 異國大官渡南江者 不吉. 撒歹不聽抵漢陽山城 拔之. 次至處仁城 爲流矢所中而死. 元兵回到松京 謂愼有知識 遣入江華."

17) 『元史』 권2, 本紀 太宗 4년 8월, "撒禮塔復征高麗, 中矢卒."

18) 『元史』 권154, 열전41, 洪福源, "(壬辰) 秋八月, 太宗復遣撒禮塔將兵來討, 福源盡率所部合攻之, 至王京處仁城, 撒禮塔中流矢卒, 其副帖哥引兵還, 唯福源留屯."

19) 『元史』 권208, 列傳95, 外夷1, 高麗, "(太宗 四年) 八月, 復遣撒禮塔領兵討之, 至王京南, 攻其處仁城, 中流矢卒. 別將鐵哥以軍還."

20) 『新元史』 권176, 列傳73, 洪福源, "太宗 復遣撒禮塔 討高麗. 福源從大軍 攻處仁城. 撒禮塔中流矢卒 副將帖哥引兵還. 福源留戍."

A-10. 이해에 札剌亦兒台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성 안에 피난한 승려 한 사람이 있어 찰자역아태를 쏘아 죽였다.(『新元史』 권249, 列傳146, 外國1, 高麗)[21]

A-11. (임진년) 8월에 명령을 내려 다시 撒里塔火里赤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를 토벌하였다. 왕경의 남쪽 처인성에 이르러 공격하다가 살리탑화리적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별장 鐵哥火里赤이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왔다.(『元高麗紀事』 太宗皇帝 4년 壬辰 8월)[22]

위의 사료 A群은 처인성전투를 망라한 것인데, 국내 사료는 『고려사』 세가(A-1・2) 및 열전(A-3), 『고려사절요』(A-4), 『신증동국여지승람』(A-5)의 기록이 있고, 국외 사료는 『원사』 본기(A-6) 및 열전(A-7・8), 『신원사』 열전(A-9・10), 『원고려기사』(A-11)의 기록이 확인된다. 처인성전투에서 몽골군 원수 살례탑을 사살한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층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고려사』 세가에서는 1232년 12월의 일로, 『고려사절요』에서는 1232년 9월의 일로, 『원사』 세가・열전 및 『원고려기사』에서는 1232년 8월의 일로 서로 다르게 기록해놓았다.

이 때문에 살례탑이 전사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사료들 가운데 처인성전투의 종료 시점 및 살례탑 사살 시점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사료 A-2가 유일하다고 본다. 사료 A-2의 「答東眞書」에 의하면, 금년(1232년) 12월 16일에 水州에 속한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적군의 괴수 살례탑을 명중시켜 죽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보가 작성한 「답동진서」가 국서, 외교문서의 성격이 있는 만큼 강도 조정에서 허위로 사실을 기록해놓았을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살례탑이 죽은 시점을 1232년 8월로 명시한 『원사』・『원고려기사』의 내용, 1232년 9월로 기록해놓은 『고려사절요』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원사』・『원고려기사』의 경우 살례탑의 전사 시점을 그가 고려에 출정했던 1232년 8월 기사에 일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생각되며, 『고려사절요』의

21) 『新元史』 권249, 列傳146, 外國1, 高麗, "是年 札剌亦兒台攻處仁城 有一僧避兵城內 射殺之."

22) 『元高麗紀事』 太宗皇帝 4년 壬辰 8월, "八月, 降旨復遣撒里塔火里赤領兵討之. 至王京南處仁城攻擊, 撒里塔火里赤中流矢卒, 別將鐵哥火里赤領兵回."

경우는 1232년에는 10-12월 기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려사절요』 찬자가 처인성전투 내용을 1232년 9월 기사에 함께 포함시켰다고 판단된다.[23]

국서이자 외교문서로서 가치가 있는 「답동진서」의 내용을 신빙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사실만큼은 명확해진다. 하나는 처인성은 처인부곡 내에 위치한 小城이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232년 12월 16일에 처인성에서 항전하던 고려인에 의해서 적장 살례탑이 사살되었다는 점이다. 적장 살례탑을 활로 쏘아 죽인 고려인은 사료 A-2에서는 그 성명이 등장하지 않으나, 사료 A-3(『고려사』 열전)과 A-4(『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승려 김윤후임을 알 수 있다. 사료 A-3·4의 내용대로라면, 승려 김윤후가 홀로 몽골군을 피해 처인부곡 안에 위치한 작은 성인 처인성에 입보하여 자기 혼자서 뛰어난 활쏘기 실력으로 적장 살례탑을 사살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김윤후는 白峴院[24]에 머물고 있었던 승려 신분이었고, 대몽전쟁 이전에 개경 조정에 의하여 僧軍이 모집된 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김윤후는 자기 혼자 처인성에 입보한 것이 아니라 백현원 소속의 僧徒와 더불어 처인성으로 들어간 것이[25] 아닌가 한다. 대몽전쟁 이전에 이미 승군을 조직적으로 편제한 것과 연관하여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 B-1. 참지정사 정숙첨을 行營中軍元帥로, 추밀원부사 조충을 부원수로, 승선 이연수를 都知兵馬事로 삼고, 다섯 領의 軍馬를 배속시켰다. 또 개경의 사람들을 모아 職이 있고 없음을 논하지 않고 무릇 종군할 수 있는 자는 모두 部伍에 배속하였고 나아가 승려들을 뽑아 군인으로 삼으니, 모두 수만 명이었다.(『高麗史節要』 권14, 高宗 3년 冬10월)[26]

---

23) 강재광, 「對蒙戰爭期 處仁城勝捷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廣州道 방어 및 部曲民·僧徒의 항전과 연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3, 한국중세사학회, 2018, 242-243면.

24) 승려 김윤후가 머물렀다는 白峴院에 대해서는 水州 處仁部曲의 사찰이라는 견해(尹龍爀, 앞의 글, 1980, 62면; 車勇杰,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41면), 振威縣의 驛院이라는 견해(이인영, 「몽고침입과 처인성 승첩에 관하여」, 『읍치와 성곽』, 민속원, 2010, 62-63면)가 제기되어 있다.

25) 金昌賢은 김윤후가 白峴院 주지승이었을 것으로 보았고, 주지승 김윤후가 백현원 僧徒를 이끌고 處仁城에 들어가 몽골군에 항전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金昌賢, 「고려시대 승병의 성격과 역할」, 『동국사학』 59, 동국사학회, 2015, 108면).

26) 『高麗史節要』권14, 高宗 3년 冬10월, "以參知政事鄭叔瞻 爲行營中軍元帥 樞密院副使趙沖副之 承宣李

B-2. 대장군 지윤심을 楊廣忠淸道防禦使로 삼아 도내의 군사와 僧軍을 거느리고 적을 막게 하였다.(『高麗史節要』권15, 高宗 4년 5월)[27]

위의 사료 B-1・2는 최충헌정권기 말엽 契丹遺種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무인집정 최충헌이 승군을 모집한 사례들이다. 먼저 사료 B-1을 보면, 거란유종을 격퇴시키기 위해 1216년(고종 3) 10월에 참지정사 정숙첨을 行營中軍元帥로, 추밀원부사 조충을 副元帥로, 승선 이연수를 都知兵馬事로 삼고 5領의 군마를 배속시켰으나 군사 수효가 부족하자 개경 사람들을 모아 종군할 수 있는 자는 모두 部伍에 배속시킴과 아울러 승려들을 뽑아 군인으로 삼으니 군사가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사료는 고려무인정권기에 최초로 승군을 모집한 사례인데, 여기서 모집된 승군은 개경과 그 주변 지역 사찰에 있었던 승려들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료 B-2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당시 무인집정 최충헌이 1217년(고종 4) 5월에 자신의 심복이었던 대장군 지윤심을 楊廣忠淸道防禦使로 삼아 楊廣道・忠淸道 내의 군사와 승군을 거느리고 적군[거란유종]을 막게 하였음이 발견된다. 이때 모집된 승군의 규모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양광도・충청도 소재 사찰들에서 승군을 모았으므로 그 수효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승군은 큰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群小 사찰들의 승려들이 연합하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료 B-1・2에서 승군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 수효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1217년이라는 시점에서 1232년의 처인성전투까지는 불과 15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217년에 양광도・충청도에서 모집된 승군 조직은 이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1219년(고종 6) 거란유종이 고려・몽골・동진 연합군의 협공에 의해서 江東城에서 패몰된[28] 이후에 양광도・충청도의 승군은 해산되었겠지만 그 당시에 모집된 승군은 대몽전쟁

延壽都知兵馬事 以五領軍馬屬焉 又括京都人 不論職之有無 凡可從軍者 皆屬部伍 又抄僧爲軍 共數萬."

27) 『高麗史節要』권15, 高宗 4년 5월, "以大將軍池允深 爲楊廣忠淸道防禦使 率道內兵 及僧軍 以禦賊."

28) 『高麗史』 권22, 高宗 6년 1월 辛巳, "六年 春正月 辛巳 趙冲・金就礪, 與哈眞・子淵等, 合兵, 圍江東城, 賊開門出降."

때 山城入保策에 따라 지역의 거점성 단위로 다시 활약하였을 여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시각이 큰 무리가 아니라면, 과거 양광도에서 모집되었던 승군의 일부는 1232년의 처인성전투에 참여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처인성이 위치하는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소재한 사찰들과 인접한 처인구 이동읍에 소재한 사찰들의 승도들이 처인성에 입보하여 항전하였을 법하다.

〈표 1〉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소재 사찰의 처인성 입보 가능성

구분	사찰명	건립시기	처인성 입보 가능성	비고
남사읍	보광사	통일신라?	미상	
이동읍	東度寺	신라 말기, 고려 초	○	본 명칭: 金丹寺
	龍德寺	9세기(신라 문성왕 연간)	○	

위의 〈표 1〉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보광사는 건립시기를 알 수 없는 반면에 처인구 이동읍에 소재한 동도사와 용덕사는 고려시대 이전에 창건된 사찰이었으므로 1232년 대몽전쟁 당시 처인성에 입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도사는 본래 명칭이 金丹寺인데, 통일신라 말기 혹은 고려 초기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덕사는 통일신라 문성왕 연간인 9세기 때 창건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29] 1232년 처인성전투 당시 금단사・용덕사 승려들은 처인성에 입보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금단사・용덕사 이외에도 현존하지 않는 사찰의 승려들이 처인성으로 들어갔을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30]

처인성전투는 중앙에서 관군이나 별초군이 파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처인부곡민과 승도의 힘만으로 몽골 정규군을 격파하였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31] 처인부곡민・승도의 용전으로 고려 22驛道 체제 중에서 廣州道 B길(남경에서 용인, 죽산, 음성을 거쳐 문경에 이르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군사적 의미도 있다.

29) 용인시, 『용인의 불교유적』, 2001, 53면 및 73면;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3, 1993.
30) 김윤후가 머물렀다는 白峴院이라는 사찰은 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에 본래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은 사찰들도 1232년 대몽전쟁 때 처인성에 입보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본다.
31) 尹龍爀, 앞의 글, 1980, 67-69면.

〈표 2〉 고려시대 22역도 체계 안에서 광주도 구분[32]

광주도	역로	비고
A길	남경 → 광주 → 이천 → 음죽 → 충주 → (조령) → 문경	관할 역: 15개
B길	남경 → 용인 → 죽산 → 음성 → 괴산 → 문경	

그러면 이제부터는 승려 김윤후가 처인성전투에서 몽골 침입군에 맞서 어떠한 전략전술과 리더십을 발휘하였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하자. 앞의 사료 A-3을 살펴보면, 백현원의 승려 김윤후가 몽골군 원수 살례탑을 직접 사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김윤후가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싸울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헛되게 많은 상을 받겠는가."라고 말한 대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김윤후의 언변을 두고서 그가 실제 살례탑을 사살했지만 전공을 처인부곡민에게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겸손한 말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3] 이와 달리 김윤후가 살례탑을 실제로 사살한 것이 아니며 김윤후의 지휘를 받은 처인부곡민이 활을 쏘아 살례탑을 죽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4] 사료 A-3의 살례탑 사살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놓고 볼 때, 살례탑을 사살한 장본인을 김윤후로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처인성전투에서 김윤후가 직접 적장 살례탑을 사살했던지 아니던지 간에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인부곡민과 승도를 통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리라는 점이다. 김윤후는 처인성에 입보한 여러 사찰 승려들로부터 승병장으로 추대를 받아 그들을 지휘하는 한편 입보민의 대다수를 이루었을 처인부곡민의 대몽전투를 지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35] 그가 처인부곡민·승도를 통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활을 직접 쏘지 않았어도 몽골군 원수 살례탑을 사살하기 위해 부곡민·승도의 전투를 독려하였을 것으로 본다. 물론 김윤후는 처인성 입보민의 다수가 처인부곡민이었기 때문에 部曲吏의

32) 〈표 2〉는 강재광, 앞의 글, 2018, 230-231면의 〈표 1〉 고려시대 驛道 체제를 참조하여 廣州道에 해당하는 것만 재구성한 것이다.
33) 周采赫,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 전쟁」,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77-80면.
34) 尹龍爀, 앞의 글, 1980, 63-65면.
35) 강재광, 앞의 글, 2018, 249면.

협조 하에 공동전선을 구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곡리의 협조를 받아 부곡민・승도를 통괄 지휘하였던 김윤후는 어떠한 전략전술을 펼쳐서 살례탑을 사살시킬 수가 있었을까? 앞의 사료 A-3・4에서는 그러한 전략전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김윤후가 "싸울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라고 짧게 말한 대목을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처인성전투가 한창일 때 김윤후는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휘를 받았던 부곡민・승도는 활과 화살을 지니고 직접 적군에게 화살을 쏘았을 것이다. 고작 몇 명의 궁수로는 집중 경호를 받고 있었을 몽골군 원수를 사살시킬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처인성 내에는 궁수 부대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궁수 부대는 앞의 사료 B-2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날 양광도 내에서 모집된 주현군과 승군 중에서 궁술이 매우 뛰어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과거 양광도에서 모집된 승군은 훗날 1232년 처인성전투 때 김윤후 휘하의 승도와 연관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36]

김윤후는 그러한 궁수 부대를 자신의 휘하에 두고 그들을 직접 지휘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윤후는 자신이 직접 적장 살례탑이 위치한 곳을 정확하게 찾아낸 후에 궁수 부대를 통해 집중적으로 조준사격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처인성 안에서 궁수 부대를 통한 집중 조준사격으로 말미암아 적장 살례탑을 잡아내는 놀라운 쾌거를 거두었다. 처인성전투에서 김윤후가 발휘한 리더십은 부곡민과 승도를 단합시켜 통합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것 이외에, 적장을 분간해서 재빨리 찾아내는 치밀함 속에서 적장을 향해 궁수 부대의 정확한 조준사격을 지시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처인성전투 승전 이후 강도 조정의 부름을 받은 김윤후가 국왕이 내린 상장군 벼슬을 사양하고 섭낭장 벼슬에 만족하였던 것은 그가 처인성전투에서 궁수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자였을 뿐 실제로 직접 살례탑을 사살한 장본인이

36) 1217년(고종 4) 5월에 楊廣道에서 뽑은 僧軍에 白峴院 승려 김윤후가 선발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처인성전투는 1232년(고종 19) 12월에 발발했으므로 양광도 승군 선발 시점과는 불과 15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처인성 입보민의 위대한 대몽항전에 대한 겸손함의 표현이자 살례탑을 사살한 전공을 처인부곡민과 승도 전체에게 돌리며 그들의 대몽항전 정신을 높이려 하였던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표 3〉 승병장 김윤후의 처인성전투 지휘 및 리더십

연도	지휘 대상	전투 지휘 및 리더십	전투 결과	포상 내역
1232년	처인부곡민, 승도	- 부곡민·승도 통괄 지휘 (수성전 전개) - 몽골군 원수부 위치 탐지 - 궁수 부대 운용 및 집중 조준사격	적장 살례탑 사살, 몽골군 철군	섭낭장에 제수됨

※ 처인성에 입보하였던 승도는 1217년 거란유종과의 전투 때 양광도 내에서 징집된 승군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3. 1253년(고종 40) 忠州城전투 승첩과 김윤후의 리더십

몽골은 고려의 六事 미이행 및 出陸還都 명령 불복을 침공 명분으로 삼아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해 1253년에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니 그것이 바로 몽골 제5차 침입이었다.[37] 몽골 제5차 침입군의 총사령관은 몽골 황제 憲宗의 叔父인 也古(也窟)이었다. 몽골군 원수 야고는 이번 침입 때 고려를 반드시 정복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며, 고려의 중부 내륙을 집중 공격하여 거점 산성들을 함락시키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몽골 제5차 침입군은 1253년 8월 12일(무오일)에 西海道의 거점성이었던 椋山城(安陵山城, 長水山石城으로 비정됨)[38]을 함락하였고,[39] 얼마 안 있어 8월 27일(계유일)에 몽골 주력군은 고려 중부 권역의 요충지였던 東州山城을 함락시켰다.[40]

몽골군은 9월에 접어들자 중부 내륙 공격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였다. 9월 21일(병신일)에 交州道의 중심 거점성인 春州城이 함락되어[41] 안찰사

37) 尹龍爀, 앞의 책, 1991, 96-107면.
38) 허인욱은 西海道의 거점성인 椋山城을 황해도 안악현의 楊山城으로 보지 않고 황해도 재령의 安陵山城으로 보았는데, 안릉산성을 곧 長水山石城(長水山城)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허인욱, 「高宗代 '花山 李氏' 李龍祥의 高麗 정착 관련 기록 검토」, 『白山學報』 100, 백산학회, 2014, 442-445면.
39) 『高麗史』 권24, 高宗 40년 8월 戊午, "蒙古兵陷西海道椋山城."
40) 『高麗史』 권24, 高宗 40년 8월 癸酉, "癸酉 蒙兵陷東州山城."

박천기와 성에 입보해 있던 백성들이 적군에게 도륙되었다.[42] 춘주성을 도륙한 몽골군은 10월 4일(기유일)에 楊根城을 포위하였는데, 방호별감 윤춘이 백성들을 이끌고 성에서 나가 항복하였다.[43] 이후 윤춘은 몽골군의 향도가 되어 몽골군의 대고려전투에 부역하는 반역행위를 일삼다가 최항정권 말엽 강도 조정에 귀순하였다.[44] 10월 9일(갑인일)에는 몽골군이 天龍山城을 공격하니 黃驪縣令 정신단과 방호별감 조방언이 성에서 나가 항복하였다.[45] 10월 초순에 중부 권역의 요충지이자 방호별감까지 파견되어 있었던 양근성·천룡산성이 차례로 함락당하면서 몽골군이 중부권을 석권하게 되었다. 야고가 거느리는 몽골군 본진 이외에 일단의 몽골군은 10월 21일(병인일)에 동해안의 거점인 襄州를 함락하였다.[46]

고려 중부권을 석권한 야고 대왕은 같은 해 10월에 충청도 권역의 최대 전략 거점이었던 충주를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몽골군이 충주를 공격했던 때가 10월 중순경의 일이었다고 여겨지는데, 前 少卿 정수가 두 아들을 데리고 京山府까지 와서 항복하였다.[47] 몽골군이 충주성에서 패퇴하기 이전까지 함락시킨 고려 산성·읍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1253년(고종 40) 몽골군의 고려 산성·읍성 함락 현황

월·일	산성·읍성 명칭	전투 상황	비고
8.12	椋山城	몽골군에게 함락됨: 수성전 실패	서해도 소속
8.27	東州山城	몽골군에게 함락됨: 수성전 실패	교주도 소속

41)『高麗史』권24, 高宗 40년 9월 丙申, "丙申 蒙兵屠春州城."
42)『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0년 9월, "蒙兵圍春州城數重 樹柵二重 坑塹丈餘 累日攻之 城中井泉皆竭 刺牛馬飮血 士卒困甚 文學曹孝立 知城不守 與妻赴火死 按察使朴天器 計窮力盡 先燒城中錢穀 率敢死卒 壞柵突圍 遇塹不得出 無一人脫者 遂屠其城."
43)『高麗史』권24, 高宗 40년 10월 己酉, "己酉 蒙兵圍楊根城, 防護別監尹椿率衆出降."
44)『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3년 6월, "郎將尹椿自蒙古軍來. 椿叛入蒙古有年. 至是, 逃還言曰, 諸將勸車羅大退屯西京. 辭以無詔曰, 吾寧死於此, 豈可退哉. 車羅大嘗將舟師七十艘, 盛陳旗幟, 欲攻押海, 使椿及一官人乘別船督戰. 押海人置二砲於大艦待之. 兩軍相持未戰. 車羅大臨岸望之, 召椿等曰, 我船受砲, 必糜碎, 不可當也. 更令移船攻之, 押海人隨處備砲. 故蒙人遂罷水攻之具. 爲今計, 宜屯田島內, 且耕且守, 淸野以待, 策之上也. 崔沆然之, 給椿家一區米豆三百斛, 超授親從將軍."
45)『高麗史』권24, 高宗 40년 10월 甲寅, "甲寅 蒙兵攻天龍山城, 黃驪縣令鄭臣旦, 防護別監趙邦彦出降."
46)『高麗史』권24, 高宗 40년 10월 丙寅, "丙寅 蒙兵陷襄州."
47)『高麗史』권24, 高宗 40년 10월, "是月, 也窟等圍攻忠州, 前少卿鄭壽, 率二子, 自京山府, 來降."

9.21	春州城	몽골군에게 함락됨: 수성전 실패	교주도 소속
10.4	楊根城	방호별감 윤춘이 몽골군에게 항복함	교주도 소속
10.9	天龍山城	방호별감 조방언이 몽골군에게 항복함	교주도 소속
10.21	權金城?	몽골군에게 함락됨	동계 소속

위의 〈표 4〉를 보면, 1253년 몽골 제5차 침입 당시 야고 대왕이 거느린 몽골군이 대부분 교주도에 소속된 고려의 산성・읍성을 함락시키거나 항복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교주도에 소속된 동주산성・양근성・천룡산성은 산성이고, 춘주성은 州城 곧 읍성이었다. 다만, 동계에 소속된 양주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양주의 대표적인 산성인 權金城이 몽골군에게 함락당한 것을 말한다고 본다. 대부분 교주도 권역의 대표적인 거점성이 함락당함으로써 대몽방어선이 일시에 무너져버렸다. 이는 몽골 침입군이 애초 의도하였던 고려 중부 내륙 거점성 점령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이러한 몽골군의 침공 의도에 고려 측은 어떻게 맞대응하고 있었던가. 충주성 승첩 이전까지 고려 측의 山城入保抗戰은 이전의 대몽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커다란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었고, 위의 〈표 4〉에서처럼 서해도・교주도 권역의 주요 거점 산성들이 적군에게 함락되었다. 고려 측에서는 牛峯別抄나 야별초가 몽골군의 척후기와 싸워 적군을 격퇴시킨 사례,[48] 喬桐別抄가 야간기습전을 펼쳐 몽골군 다수를 살상시킨 사례,[49] 충주 지방민이 매복전으로 몽골군을 물리친 사례[50] 등만 보일뿐이다. 이러한 소규모 전투 승리는 고려 별초군의 영격전・야간기습전이나 주현민의 매복전 수행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몇몇 소규모 전투 승리로는 몽골 주력군을 고려 땅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었다.

몽골 제5차 침입에서 고려 측이 거둔 결정적 승리는 충주성전투 승첩이었다.

48)『高麗史』 권24, 高宗 40년 8월 癸丑, "癸丑 校尉大金就率牛峯別抄三十餘人, 與蒙古兵, 戰于金郊・興義間, 斬首數級, 獲馬・弓矢・氈裘等物."『高麗史』권24, 高宗 40년 8월, "是月, 蒙兵候騎三百餘, 至全州城南班石驛, 別抄指諭李柱, 擊殺過半, 獲馬二十匹."

49)『高麗史』 권24, 高宗 40년 11월 辛卯, "喬桐別抄, 伏兵平州城外, 夜入虜營, 擊殺甚衆, 校尉張子邦持短兵, 手殺屯長二十餘人."

50)『高麗史』 권24, 高宗 40년 9월 乙酉, "乙酉 忠州倉正崔守設伏金堂峽, 候蒙兵至, 急擊殺十五級, 奪其兵仗與所虜男女二百餘人.以功, 除隊正."

그러면 충주성전투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아래의 사료들을 살펴보자.

C-1. 임술일에 충주에서 몽골군이 포위를 풀었다고 급히 보고를 올렸다.(『高麗史』 권24, 高宗 40년 12월 壬戌)[51]

C-2. 후에 忠州山城防護別監이 되었는데 몽골군이 쳐들어 와 충주성을 포위하기를 70여 일간 하니 군량을 저축한 것이 거의 바닥났다. 김윤후가 괴로워하는 군사들을 북돋으며 말하기를, "만약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하려 하니 너희는 불신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고는 드디어 官奴 문서를 취해 불사르고 또 노획한 소와 말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 다가가니 몽골군은 조금씩 기세가 꺾였고 결국 남쪽을 도모할 수 없었다. 이 공으로 監門衛上將軍이 되었고, 그 나머지 군공이 있는 자들은 관노와 白丁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작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52]

C-3. 충주에서 몽골군이 포위를 풀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포위를 당한 것이 무릇 70여 일이 되었으며, 병량은 거의 바닥났다. 방호별감 郎將 김윤후가 병사와 백성들을 독려하며 말하기를, "만약 힘을 다한다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관작을 제수하겠다."라고 하였다. 관노의 簿籍을 불태워 믿음을 보이고, 또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눠주었다. 백성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니, 몽골군의 기세가 차츰 꺾여 마침내 다시 남쪽으로 가지 못하였다.(『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0년 12월)[53]

위의 사료 C군은 1253년 충주성전투에 관한 『고려사』·『고려사절요』의 기사 내용이다. 사료 C-1에서는 1253년 12월 18일(임술일)에 충주에서 몽골군이 포위를 풀었다고 급히 보고를 올렸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충주성전투가 같은 해 10월에 개시되었으므로 대략 2개월 반 동안 전투가 지속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전투가 벌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충주읍성이라는 견해,[54] 충주산성이라는 견해가[55] 양립하고 있다. 근래 『충주읍성 발굴조사보고서』에

51) 『高麗史』 권24, 高宗 40년 12월 壬戌, "壬戌 忠州馳報, 蒙兵解圍."

52)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後爲忠州山城防護別監, 蒙古兵來圍州城, 凡七十餘日, 糧儲幾盡. 允侯諭屬士卒曰, 若能效力, 無貴賤悉除官爵, 爾無不信. 遂取官奴簿籍焚之, 又分與所獲牛馬. 人皆效死赴敵, 蒙古兵稍挫, 遂不復南. 以功拜監門衛上將軍, 其餘有軍功者, 至官奴·白丁, 亦賜爵有差."

53)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0년 12월, "忠州報蒙兵解圍. 時, 被圍凡七十餘日, 兵食幾盡. 防護別監郎將金允侯諭厲士衆曰, 若能效力, 無貴賤, 悉除官爵. 焚官奴簿籍以示信, 又分給所獲牛馬. 人皆效死, 蒙兵稍挫, 遂不復南."

54)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金允侯將軍의 3次例 勝戰의 意義」, 『白山學報』 114, 백산학회, 2019, 134-135면.

의하면 고려시대 충주읍성이 내성과 외성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56] 그리고 발굴조사에 참여한 학자들은 충주읍성에는 官奴 문서가 당연히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1253년 충주성전투의 현장을 충주읍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57] 하지만 대몽전쟁이 격화되면서 당시 고려의 邑治(州治)가 산성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일반화 되었으므로[58]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충주산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59] 여기서 충주산성에 대해서는 月嶽山城이었다는 견해,[60] 大林山城이었다는 견해가[61] 제기되어 있다.

한편 사료 C-2・3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김윤후는 사료 C-2에서 충주산성방호별감으로 나타나고, 사료 C-3에서는 무관 벼슬이 郎將으로 등장한다. 1232년에 살례탑을 사살시킨 공으로 섭낭장에 오른 김윤후는 1253년 당시 낭장 벼슬이었으므로, 거의 20년 동안 무관 벼슬이 크게 승진하지 않았다. 이는 김윤후가 무관 벼슬 승진에 연연하지 않았음을[62] 이해하여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1253년 당시 김윤후는 제2차 방호별감으로 충주성에 파견되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다.

---

55) 윤용혁, 「충주민의 대몽항전과 다인철소」,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172-173면.
56)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忠州邑城 學術調査報告書』, 2011.
57) 김호준, 앞의 글, 2019, 134-135면.
58) 崔鍾奭, 「대몽항쟁・원간섭기 山城海島入保策의 시행과 治所城 위상의 변화」, 『震檀學報』 105, 진단학회, 2008, 46-52면.
59) 윤용혁, 앞의 책, 2011, 173면.
60) 尹龍爀, 앞의 책, 1991, 310-311면. 윤용혁은 김윤후가 임명받은 忠州山城防護別監이라는 官名에 주목하여 김윤후가 忠州邑城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忠州山城에 파견되었으며, 그러한 충주산성은 충주 인근지역에서 가장 험한 요새로 구축된 月嶽山城(德周山城)일 것으로 비정하였다.
61) 최규성, 「제5차 여몽전쟁과 충주산성의 위치 비정」, 『상명사학』 6, 상명사학회, 1998. 최규성은 大林山城이 충주 관아와 4㎞ 정도의 근거리이면서 천험의 요새라는 점, 대림산이 충주의 진산이라는 점, 둘레가 5㎞(4,906m)의 대규모 입보용 성곽이라는 점, 지표조사에 의하여 고려시대의 유물(토기, 자기, 기와편)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해서 1253년 충주성전투의 현장을 대림산성으로 비정하였다.
62) 1232년(고종 19) 12월에 김윤후가 몽골군 元帥 撒禮塔을 사살한 공으로 江都 조정으로부터 上將軍이라는 최고위 무관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굳이 사양한 것은 그의 청렴하고 겸손한 인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승려 신분으로서 고위 무관직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표 5〉 대몽전쟁기 방호별감 파견 사례[63]

시기	이름	담당지	전거	방어 결과
1236년 (고종 23)	송문주	竹州城	『高麗史』 권103	죽주성 방어 성공
1236년 (고종 23)	미상	席島	『高麗史』 권23	몽골군 3명을 생포하여 강도로 보냄
1252년 (고종 39)	미상	○城	『太祖實錄』 권1	
1253년 (고종 40)	김윤후	忠州城	『高麗史』 권103	충주성 방어 성공
1253년 (고종 40)	윤춘	楊根城	『高麗史』 권24	몽골군에게 항복하고 양근성을 내어줌
1253년 (고종 40)	조방언	天龍山城	『高麗史』 권24	몽골군에게 항복하고 천룡산성을 내어줌
1253년 (고종 40)	권세후	椋山城	『高麗史』 권101	양산성이 함락당하고 권세후는 목메어 자결함
1253년 (고종 40)	백돈명	東州山城	『高麗史』 권101	동주산성이 함락당하고 백돈명은 몽골군에게 죽임을 당함
1256년 (고종 43)	송길유	경상도(水路)	『高麗史』 권122	경상도수로방호별감으로 파견되어 해도 입보를 추진함
1258년 (고종 45)	주윤	陽波穴	『高麗史』 권24	양파혈이 몽골군에게 함락당함
1258년 (고종 45)	노극창	嘉殊窟	『高麗史』 권24	가수굴이 몽골군에게 함락당함
1258년 (고종 45)	유방재	廣福山城	『高麗史』 권24	광복산성 입보민이 방호별감 유방재를 죽이고 몽골군에 투항함
1258년 (고종 45)	정기	達甫城	『高麗史』 권24	달보성 입보민이 방호별감 정기를 붙잡아서 몽골군에 투항함
1259년 (고종 46)	왕중선	金剛城	『高麗史』 권80	금강성방호별감 왕중선이 금강성의 백성을 거느리고 강도로 피난을 옴
1259년 (고종 46)	안홍민	寒溪城	『高麗史』 권130	한계산성방호별감 안홍민이 야별초를 거느리고 몽골군을 격퇴시킴

위의 사료 C-2는 『고려사』 열전 김윤후전인데, 사료들 중에서 충주성전투에 관한 가장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충주성전투의 전개과정이나 전투 방식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64] 방호별감 김윤후의 대몽전략과

63) 홍민호,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韓國史硏究』 193, 한국사연구회, 2021, 143면의 〈표 2〉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리더십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 있어서 주의 깊게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야고 대왕이 직접 지휘하는 몽골군 본진이 무려 70여 일간이나 충주성을 포위하자 성에 저장되어 있던 군량이 거의 바닥나게 되었다. 군량이 거의 소진되니 성 안의 군사들의 사기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방호별감 김윤후가 괴로워하는 군사들을 북돋우면서 "만약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하려 하니 너희는 불신함이 없도록 하라."고 독려하였다. 그러고서 김윤후는 곧장 충주 관할 관노 문서를 취해 불사르고 또 몽골군으로부터 노획한 소와 말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방호별감 김윤후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지자 충주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몽골군에 다가가니 적군은 조금씩 기세가 꺾였고 결국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 특히 김윤후의 극단적인 조치를 환영한 것은 관노를 포함한 천인 계층이었다고 여겨지는데, 신분해방을 염원한 그들은 죽기 살기로 몽골군과 혈전을 벌여 결국 몽골군의 기세를 한풀 꺾어 놓았던 것이다. 충주성전투에서 승리한 공으로 김윤후는 1254년(고종 41) 2월에 監門衛上將軍이 되었고, 그 나머지 군공이 있는 자들은 관노와 白丁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작을 차등 있게 하사받았다.[65]

1253년 10-12월에 치러진 충주성전투에서 방호별감 김윤후가 보여준 조치는 실로 극적이었다. 군량이 고갈되고 군사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향후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김윤후는 충주 관할의 관노 문서를 불사르고 몽골군에게서 빼앗은 소와 말을 성 안의 군사들과 입보민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대몽항전 의지를 불태웠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평상시 왕조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충주성을 적군에게 함락당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충주산성방호별감의 특수하고도

64) 본문의 사료 C-2・3에서는 충주성전투의 전개과정이나 전투 방식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충주성전투는 분명히 장기전을 각오한 守城戰으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며, 몽골군이 낮에 휴식하고 있을 때나 야간에 宿營하고 있을 때를 기하여 出城奇襲戰을 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65) 『高麗史節要』권17, 高宗 41년 2월, "以鄭準崔坪林景弼竝爲樞密院副使, 以忠州山城別監郎將金允侯爲監門衛攝上將軍, 其餘有軍功者及官奴白丁, 亦賜爵有差."

이례적인 조치였던 것이고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차후 강도 조정으로부터 추인 받게 되었다.66)

충주성전투에서 엿볼 수 있는 김윤후의 리더십은 기존 고려왕조의 신분제도, 관직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 조치를 실행에 옮겨서 충주성 입보민을 단합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고조시켜 몽골군에 대한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김윤후의 리더십이 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김윤후가 처인성 승첩의 주역이었기 때문이며, 대몽항전의 실질적 주체였던 일반 백성과 별초군으로부터 커다란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김윤후의 리더십은 그가 발언한 바를 실제로 지키는 것으로 구현되었는데, 1254년 2월에 국가로부터 충주성전투에서 군공이 있었던 자들은 관노와 백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작을 차등 있게 받았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된다.

〈표 6〉 방호별감 김윤후의 충주성전투 지휘 및 리더십

연도	지휘 대상	전투 지휘 / 리더십 발휘	전투 결과	포상 내역
1253년 (고종 40)	충주성 입보민, 충주별초군	**〈전투 지휘〉** -입보민・별초군 통괄 지휘 -몽골군에 대해 수성전・출성기습전 전개 **〈리더십 발휘〉** ①힘을 내어 싸울 수 있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내리겠다고 약속함 ②관노 문서를 불사르고 몽골군으로부터 빼앗은 소와 말을 입보민에게 나누어줌	몽골군 총사령관 야고 대왕의 부상, 몽골군이 충주성 포위를 풀고 철군	김윤후가 감문위상장군에 제수됨. 군공이 있는 자들이 모두 다 포상 받음

66) 忠州山城防護別監 김윤후는 1253년 충주성전투에서 성 안에 입보해 있던 천민들의 전투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官奴 문서를 불사르는 등 매우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는 충주성이 몽골군에게 함락당할 매우 절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그러한 파격적인 조치를 먼저 실행하였으므로 충주성 승첩 이후에 자신이 독단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조치를 강도 조정에 보고하였을 것으로 본다. 강도 조정으로서는 전시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취해진 조치였으므로 차후 추인하였다고 생각된다.

4. 1259년(고종 46) 寒溪山城・泉谷村전투 승첩과 김윤후의 리더십

1253년 충주성전투를 극적인 승리로 이끌어 감문위상장군에 오른 김윤후는 몽골 제6차 침입(1254-1259) 말엽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몽골 제6차 침입 말엽에는 太子親朝를 조건으로 하여 여・몽 사이에서 강화 교섭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대몽강화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더라도 대몽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동계 방면에서 和州・登州 등 15州 백성들의 반란과 投蒙으로 雙城摠管府가 두어졌으며,[67] 몽골군과 화주・등주 叛民은 고려의 동계・교주도 방면을 공략하고 있었다. 이러한 複雜多難한 시기에 김윤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지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D-1. 무오일에 정지를 西北面兵馬使로, 김윤후를 東北面兵馬使로 삼았다.(『高麗史』 권24, 高宗 46년 1월 戊午)[68]

D-2. 외관으로 동북면병마사가 되었지만 당시 동북면은 이미 몽골에게 함락되었으므로 부임하지 못하였다.(『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69]

위의 사료 D-1을 보면, 대몽전쟁 말엽인 1259년(고종 46) 1월 14일(무오일)에 정지가 서북면병마사에, 김윤후가 동북면병마사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료 D-2에서는 김윤후가 외관으로 동북면병마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 동북면은 이미 몽골에게 함락되었으므로 부임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사료 D-2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신빙해야 할까? 또한 김윤후는 동북면병마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점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료 D-2에서 김윤후가 부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동북면병마사의 임지인 등주, 곧 安邊都護府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당시 안변도호부는 화주・등주 등 東界民의 반란으로 쌍성총관부 영역으로 편입되

67) 『高麗史』권24, 高宗 45년 12월 己丑, "龍津縣人趙暉, 定州人卓靑, 以和州迤北, 附蒙古. 蒙古置雙城摠管府于和州, 以暉爲摠管, 靑爲千戶."
68) 『高麗史』권24, 高宗 46년 1월 戊午, "戊午 以鄭芝爲西北面兵馬使, 金允侯爲東北面兵馬使."
69) 『高麗史』권103, 列傳16, 金允侯, "(前略) 出爲東北面兵馬使, 時東北面, 已沒於蒙古, 故不赴."

었으므로 김윤후는 당연히 임지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1259년 1월 당시 김윤후는 안변도호부로 나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안변도호부 이남 지역에서 동북면병마사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다.[70]

김윤후가 강도로 즉각 복귀하지 않고 동북면병마사 책무를 일정한 기간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특히 주목되는 것이 1259년 1월 강도 조정의 별초군 급파이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E. 東眞이 金剛城을 공격하자 別抄 3,000인을 보내 금강성을 구하였다.(『高麗史』 권24, 高宗 46년 1월 丁未)[71]

위의 사료 E를 보면, 동진이 금강성을 공격하자 1259년 1월 3일에 강도 조정에서 별초 3,000인을 급히 보내 금강성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별초 3,000인이 파견된 시점이 1월 3일이고, 김윤후가 동북면병마사에 임명된 시점이 1월 14일이므로 김윤후는 자신의 임지인 안변도호부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동계·교주도 방면의 어느 거점성에 머무르면서[72] 별초 3,000인을 지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양계의 병마사는 중앙군을 거느리고 임지에 부임했고[73] 전쟁·반란 등 유사시 개경 조정에서 급파한 중앙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74] 그런데 대몽전쟁기에는 安北府戰鬪 패전 이후 중앙군이 와해되어 제 구실을 못하였고 삼별초를 중심으로 한 별초군으로 군제가 재편되었기 때문에 동북면병마사 김윤후는 임지에 부임하지 못했더라도 동계·교주도의 어느 거점성에 머무르면서 동계를 몽골군으로부터

70) 1259년 1월에 김윤후가 東北面兵馬使에 임명되어 東界 지역에서 실제로 병마사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서 주목된다(김호준, 앞의 글, 2019, 141-147면).

71) 『高麗史』 권24, 高宗 46년 1월 丁未, "東眞寇金剛城, 遣別抄三千人救之."

72) 1259년(高宗 46) 1월에 東北面兵馬使 김윤후가 자신의 任地인 安邊都護府(登州)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는 안변도호부 남쪽의 東界·交州道 방면의 어느 據點城에 머무르면서 別抄 3,000을 어떻게 운용할지 對蒙防禦 전략을 구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73) 김남규, 「高麗 兩界兵馬使에 대하여」,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74) 1231년(고종 18) 제1차 對蒙戰爭 때 西北面兵馬使 朴犀는 安北都護別抄를 거느리고 북계 內陸路의 최대 據點城인 龜州城에 입보하는 대신에 자신의 본래 任地였던 安北城(安北府城)을 고려 三軍에 내어주고 그들이 그곳에 주둔하여 몽골 주력군을 방어하도록 협력한 전례가 있다.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 참조.

구원하기 위해 별초 3,000을 지휘하거나 그들과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별초 3,000인은 삼별초가 중심이 된 부대로서[75] 금강성을 구원한 이후에 여러 부대로 나뉘어서 몽골군과 투몽고려군민에 맞서 동계・교주도 방면을 방어했다고 여겨지는데,[76] 별초 3,000인에 속했을 야별초 부대의 대몽전투와 연관되어 한계산성전투가 나타난다. 한계산성전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자.

F-1. 2월에 등주・화주 등의 여러 성의 반역한 백성이 관인을 자칭하고 몽골인을 인도해 와서 寒溪城을 공격하였다. 방호별감 안홍민이 야별초를 이끌고 출격하여 섬멸하였다.(『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6년 2월)[77]

F-2. 다음 해(1259년), 조휘 일당은 관료라고 자칭하면서 몽골군을 이끌고 와서 한계성을 공격하였다. 방호별감 안홍민이 야별초를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여 그들을 섬멸하였다.(『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趙暉)[78]

위의 사료 F-1을 보면, 1259년 2월에 등주・화주 등 동계 여러 성의 반역한 백성이 관인을 자칭하고 몽골인을 인도해 와서 한계산성을 공격했음을 알 수 있는데, 등주・화주 등 반역한 백성이란 사료 F-2에서 조휘 일당임을 간파할 수 있다. 그 당시 조휘는 쌍성총관부 摠管으로서 몽골의 관리였으므로 몽골군을 이끌고 와서 한계산성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러한 쌍성총관 조휘 휘하의 반역한 등주・화주 등 고려 반민과 몽골군의 침공에 맞서서 한계산성 방호별감 안홍민이 야별초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여 섬멸하였다.

사료 F-1・2에서 방호별감 안홍민이 조휘 일당과 몽골군을 무찌르는 데

75) 姜在光, 「1250-1270年代 神義軍의 對蒙抗戰과 政治活動」,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248-249면.

76) 강재광, 「1259년 삼별초의 춘주(春州) 천곡촌전투(泉谷村戰鬪) 승전과 그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 121, 한국역사연구회, 2021, 200-202면.

77)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6년 2월, "二月 登和州等諸城叛民自稱官人 引蒙人來 攻寒溪城 防護別監安洪敏率夜別抄出擊 盡殲之"

78)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趙暉, "明年 暉黨自稱官人 引蒙古兵來 攻寒溪城 防護別監安洪敏 率夜別抄 出擊盡殲之 王使郎將金器成別將郭貞有 齎國贐 如蒙古屯所 慰之 器成等至文州 暉黨在寶龍驛 與蒙古兵三十餘人 殺器成等幷傔從十三人 掠國贐而去."

동원한 야별초에 눈길이 간다. 방호별감 안홍민이 거느린 야별초는 어디에서 온 부대일까? 그것은 당연히 위의 사료 E에서 등장하는 별초 3,000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본다. 금강성을 구원하기 위해 급파된 별초 3,000은 금강성 전투를 치르고 나서 그 일부 야별초 부대가 한계산성에 입보하여 몽골군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별초 3,000에 포함되어 있던 야별초 부대를 한계산성으로 보낸 이는 동북면병마사 김윤후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동북면병마사 김윤후는 동계·교주도 방면의 어느 거점성에 머무르면서 한계산성을 지키기 위해 야별초를 한계산성으로 보냈다고 보아진다. 물론 김윤후가 몽골에 점령당하지 않은 동계·교주도 방면에 급파된 별초군을 통할 지휘할 수 있는 병마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별초 3,000에 포함되어 있는 삼별초(야별초+신의군)를 한계산성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거점성에도 보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1259년 2월에 치러진 한계산성전투 승리는 방호별감 안홍민과 야별초, 입보민의 분투에 의한 것이지만 미리 전투 준비를 위해 야별초를 급파하였던 동북면병마사 김윤후의 사료 상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이 결합된 결과였다. 한계산성전투에서 방호별감 안홍민이 대담하게도 적극적인 出城戰을 전개하여 조휘 일당과 몽골군을 격퇴함으로써 한계산성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다.

위의 사료 F-1·2에서 동북면병마사 김윤후는 등장하지 않지만, 야별초를 한계산성에 급파함으로써 방호별감 안홍민이 야별초를 통해 마음껏 대몽전투를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계산성전투는 동북면병마사 김윤후와 한계산성 방호별감 안홍민, 그리고 야별초 및 입보민이 상호 협력하여 거둔 승리로서 의미가 있다고[79] 할 것이다.

한편, 동북면병마사 김윤후는 한계산성전투 승리 이후에 쌍성총관 조휘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

79) 김호준, 앞의 글, 2019, 146-147면.

이는데, 이와 연관하여 1259년 3월에 치러진 춘주 천곡촌전투가 특히 주목된다. 천곡촌전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G-1 東眞國의 병사가 등주・화주의 반란한 백성을 이끌고 춘주의 천곡촌에 주둔하였다. 神義軍 5인이 車羅大의 使者를 사칭하고 말을 달려 그 주둔지로 들어와서 말하기를, "너희는 활과 칼을 풀어 한 곳에 모아두고 함께 원수의 명령을 들어라. 고려의 태자가 장차 入朝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찌 고려 사자 김기성을 죽이고 국가 예물을 빼앗았느냐. 너희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니 모두들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다. 이에 채찍을 휘두르며 별초 군사를 불러서 사방에서 공격하니 한 명도 탈출한 자가 없었다. 마침내 국가의 예물과 김기성 등의 의복을 되찾아서 돌아왔다.(『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6년 3월)[80]

G-2. 조휘 일당이 또한 동진국의 병사를 이끌고 춘주 천곡촌에 주둔하였다. 신의군 5인이 몽골 장군 차라대의 사자를 사칭하고 말을 달려 그 주둔지로 들어와서 말하기를, "너희는 활과 칼을 풀고 원수의 명령을 들어라. 고려의 태자가 장차 입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찌 고려 사자를 죽이고 예물을 빼앗았느냐. 너희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니 모두들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다. 이에 채찍을 휘두르며 별초를 불러서 사방에서 공격하니 한 명도 탈출한 자가 없었다. 마침내 국가의 예물과 김기성의 의복・물건을 되찾아서 돌아왔다.(『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趙暉)[81]

위의 사료 G-1・2는 춘주 천곡촌전투에 대한 것인데, 춘주 천곡촌은 춘주도 橫川縣의 甘泉驛 부근에 비정된다는 견해가[82]가 있다. 사료 G-1에서 동진국의 병사가 등주・화주의 반란한 백성을 이끌고 춘주의 천곡촌에 주둔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사료 G-2에서는 조휘 일당이 동진국의 병사를 이끌고 춘주 천곡촌에 주둔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계산성에서 패퇴한 조휘 일당의 군사적 이동과 병력 보충을 위해 동진국 병사를 끌어들인 정황을 중요시한다면

80)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6년 3월, "東眞國兵率登和州叛民 屯于春州泉谷村 有神義軍五人詐稱車羅大使者 馳入其屯曰 解爾弓劍 置于一所 咸聽元帥教命 高麗太子將入朝 汝何殺高麗使者器成而奪國贐乎 爾罪當死 皆伏地股栗 於是 揮鞭召別抄兵 四面攻之 無一脫者 遂得國贐及器成等衣服而還."

81)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趙暉, "暉黨又引東眞國兵 屯春州泉谷村 有神義軍五人 詐稱蒙古將軍車羅大使者 馳入其屯曰 解爾弓劍 聽元帥教命 高麗太子將入朝 汝何殺高麗使者 奪國贐乎 爾罪當死 皆伏地股栗 於是 揮鞭召別抄 四面攻之 無一脫者 遂得國贐及器成等衣物而還."

82) 강재광, 앞의 글, 2021, 195-196면.

사료 G-2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천곡촌전투에서 주목되는 것은 몽골군 원수 車羅大의 使者로 위장한 신의군 병사 5인의 대활약이다. 신의군 병사 5인은 조휘 일당과 동진군이 머물던 주둔지에 급히 말을 타고 달려가서 "너희는 활과 칼을 풀어 한 곳에 모아두고 함께 원수의 명령을 들어라. 고려의 태자가 장차 입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찌 고려 사자 김기성을 죽이고 국가 예물을 빼앗았느냐. 너희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호통을 쳤다. 조휘 일당과 동진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는데 성공한 신의군 병사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별초 군사를 불러서 사방에서 공격하니 한 명도 탈출한 자가 없었다고 한다. 신의군 병사 5인이 몽골군 원수 차라대의 사자라고 위장한 것이라고 보아 그들은 몽골어에 어느 정도 능통한 자들이었고, 몽골군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몽골어를 구사할 수 있고 몽골군 복장 차림을 하였던 신의군 병사 5인은 조휘 일당에게 몽골군 원수 차라대가 보낸 사자라고 착각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위장전술·기만전술이 통하여 천곡촌전투에서 조휘 일당과 동진군을 섬멸할 수 있었다. 천곡촌전투에서 신의군 병사 5인이 사면에서 불러들인 별초는 삼별초였으며, 이들 삼별초는 금강성구원전에 투입된 별초 3,000의 일부였다고 생각된다.

천곡촌전투에서 차라대의 사자라고 위장한 신의군 병사 5인이 주변 사방에 매복해 있던 삼별초를 불러들여 일거에 조휘 일당과 동진군을 섬멸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한다. 신의군 병사 5인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갑작스럽게 조휘 일당이 머무르고 있던 주둔지로 달려왔을까? 우선 생각하기에 그들은 어느 삼별초 무관의 지시를 받고 천곡촌으로 달려왔을 것이다. 고려시대 양계의 병마사가 개경 조정에서 급파한 중앙군과 협동작전을 펼쳐왔다는 측면에서, 동북면병마사 김윤후가 삼별초 무관들과 협의하여 몽골어에 능통하고 고려 사신 김기성 피살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신의군 병사를 엄선하여 천곡촌으로 급히 내려보냈다고 생각된다. 동북면병마사 김윤후는 그 당시 동계·교주도 방면을 사수하고 있었던 삼별초 무관들과 작전회의를 통해 조휘 일당을 속일 수 있는 신의군 병사 5인을

엄선하여 일단의 삼별초 병력과 더불어 천곡촌으로 급파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면, 김윤후는 동북면병마사로서 임지인 안변도호부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동계·교주도의 어느 거점성에 머무르면서, 1259년 2월의 한계산성전투와 같은 해 3월의 천곡촌전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던 셈이 된다. 물론 동북면병마사 김윤후가 두 전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적시에 삼별초 병력을 급파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계산성전투 및 천곡촌전투 승전 이후 1259년 4월에 태자친조를 조건으로 대몽강화가 체결되었으므로 동북면병마사 김윤후가 대몽강화 체결, 대몽전쟁 종식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259년 한계산성전투와 천곡촌전투 승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동북면병마사 김윤후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7〉 1259년 동북면병마사 김윤후의 리더십

시기	전투 명칭	전투 지원 및 리더십	전투 결과
1259(고종 46) 2월	한계산성전투	-**전투 지원**: 한계산성방호별감 안홍민에게 야별초 부대 급파 -**리더십**: 별초 3,000의 효율적 운용	방호별감 안홍민이 출성전으로 조휘 일당과 몽골군 격파
1259(고종 46) 3월	천곡촌전투	-**전투 지원**: 몽골군 복장을 입고 몽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신의군 병사를 선발하여 삼별초와 더불어 춘주 천곡촌에 급파 -**리더십**: 조휘 일당과 동진군에 대한 기만전술·위장전술 구사	춘주 천곡촌 전투에서 신의군을 포함한 삼별초가 조휘 일당과 동진군 섬멸

5. 맺음말—김윤후 리더십의 현대적 조명—

이글에서 필자는 대몽전쟁의 영웅인 김윤후의 대몽전략과 리더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았다. 백현원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후는 처인성전투에서 승병장으로서 처인부곡민과 승도를 통괄 지휘하여 궁수 부대의 집중 조준사격을 통해 몽골군 원수 살례탑을 사살하였고, 충주성전투에서는 방호별감으로서 몽골군 총사령관 야고 대왕이 직접 지휘하는 몽골군을 70여 일간의 공방전 끝에 물리쳤으며, 대몽강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치러진 한계산성전투와 천곡촌

전투에서는 동북면병마사로서 삼별초 병력을 적시에 투입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러한 매우 특출한 전공을 세운 결과, 김윤후는 1262년(원종 3) 12월에 추밀원부사 예부상서에 올랐고,[83] 1263년(원종 4) 12월에는 수사공 우복야에 오름으로써[84] 재상 반열에 들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대몽전쟁기 승병장이자 고위 무관으로 활약한 김윤후의 리더십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김윤후는 대몽전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았음에도 높은 관직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성품을 보여주었다. 승병장 김윤후가 처인성전투에서 궁수 부대를 활용한 집중 조준사격으로 적장 살례탑을 사살하였는데, 이러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서 상장군 직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그는 전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굳이 받지 않고 사양하였다. 그래서 김윤후에게 섭낭장이라는 하급 벼슬이 내려졌는데, 그가 충주산성방호별감으로 파견되었을 때 관직이 낭장이었으므로 근 20년 동안 무관직 변동이 없었다고 보면 정확하다. 그만큼 김윤후는 자신이 세운 전공을 특별하게 내세우지도 않았으며 욕심을 부려 고위 무관직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다. 김윤후의 청렴결백한 성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김윤후는 전통시대 신분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귀천을 막론하고 능력이 있는 인물들을 적극 전투에 활용하였으며 그들이 전공을 세웠을 때 모두 포상하였다. 그는 충주성전투에서 이른바 능력중심, 실력중심의 군사 운용을

83) 『高麗史』 권25, 元宗 3년 12월 丁丑, "丁丑 以金起孫爲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李世材爲門下侍郎平章事, 李藏用爲中書侍郎平章事, 金純守太尉判禮部事太子少師, 柳璥守司徒知門下省事太子少傅, 崔昷判工部事, 金佺・金仁俊並爲樞密院使, 李應韶知樞密院事左散騎常侍太子賓客, 崔允愷知樞密院事兵部尙書太子賓客, 朴松庇同知樞密院事右散騎常侍, 金允候爲樞密院副使禮部尙書, 李之葳・崔瑛爲尙書左右僕射, 朴成梓叅知政事判禮部事, 仍令致仕."

84) 『高麗史』 권25, 元宗 4년 12월 丙寅, "丙寅 以李藏用守太傅判兵部事太子太傅, 柳璥守太保叅知政事太子太保, 金俊守太尉叅知政事判御史臺事太子少師, 金佺守司徒知門下省事太子少傅, 朴松庇守司空左僕射太子少保, 李應韶爲樞密院事, 崔允愷知樞密院事, 李之葳・崔瑛並同知樞密院事太子賓客, 羅得璜・韓就並爲樞密院副使, 蔡楨爲樞密院副使御史大夫, 宋義・洪縉爲尙書左右僕射, 申思佺爲兵部尙書, 兪千遇・朴倫爲樞密院左右承宣, 金冲爲右副承宣, 金方慶知御史臺事, 金坵・李松縉爲左右諫議大夫, 李世材守太傅門下侍郎平章事, 仍令致仕. 金純守太傅門下侍郎平章事, 崔昷守太傅中書侍郎平章事, 金允候守司空右僕射, 奉禧爲樞密院副使工部尙書, 並令致仕."

실제로 보여주었다. 충주성이 몽골군에게 함락될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을 지키던 하층민의 사기와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관노 문서를 직접 불살라버렸으며 적군에게서 빼앗은 소와 말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관노 문서 소각과 노획물 분배는 충주성을 지키던 하층민의 전투의지를 고조시켜 죽기 살기로 몽골군과 접전케 하였으며 결국 70여일에 걸친 공방전 끝에 몽골군을 물리치게 되었다. 김윤후가 만약 관노 문서를 소각하지 않고 기존 신분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면 아마 충주성을 지켜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방호별감 김윤후가 내린 특단의 대책은 신분제도를 뛰어넘는 능력중심, 실력중심의 군사 운용이었다. 나중에 국가가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충주성전투에 임하여 전공을 세웠으면 모두 다 포상하였던 것도 김윤후가 강도 조정에 차후 충주성전투의 顚末을 상세하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셋째, 김윤후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제로 적시에 실행에 옮기는 군사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처인성전투에서 김윤후는 고려의 정규군이 아니었음에도 대몽전략을 잘 수립하여 적장 살례탑을 사살하였다. 그는 처인성 안에 입보해 있던 부곡민・승도 중 활을 잘 쏘는 자들을 중심으로 궁수 부대를 급조하여 몽골군 지휘부만을 노리게 하여 집중 조준사격으로 살례탑을 사살하는데 성공하였다. 충주성전투에서 김윤후는 수성전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출성전도 과감하게 전개해서 몽골군을 격파하였다. 김윤후가 출성전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그가 충주성 안의 하층민에게 몽골군에게 빼앗은 소와 말을 나누어주었다는 데서 여실히 증명이 된다. 한편, 김윤후가 동북면병마사로서 임지에 나아가지 못했으나 동계・교주도 방면의 어느 거점성에 머무르면서 별초 3,000을 미리 한계산성 등 주요 요해처 산성에 분산 배치하여 몽골군・동진군 침공에 대비하였던 것도 그가 뛰어난 군사전략가였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넷째, 김윤후는 무관 벼슬이 상장군에 이르렀고 문관 벼슬이 수사공 우복야에 오를 만큼 현달하였지만, 최씨무인정권・김준정권에 아부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고려왕조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무인집정

최우・최항・최의 그리고 김준에게 협조하였으나 그들의 심복이 되지는 않았으며, 1258년(고종 45) 戊午政變 같은 주요한 정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김윤후의 관심은 정치권력의 실세로 급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왕조의 부흥과 대몽전쟁의 종식, 그리고 민생의 회복이었다. 국가에 충성하고 백성의 목숨을 아꼈던 김윤후는 고려 문・무관뿐만 아니라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존경을 받았다. 그가 충주산성방호별감과 동북면병마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일반 백성들이 그를 지극히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대몽전쟁기의 영웅인 김윤후의 리더십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바가 많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의 지위가 높아져도 항상 겸손함과 청렴함을 잃지 않으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태도는 현대인에게 모범적인 정치인, 군인의 귀감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元史』
『元高麗紀事』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경인문화사, 2011.
김광철, 『원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정치』, 경인문화사, 2018.
김호준, 『고려 대몽항쟁과 축성』, 서경문화사, 2017.
민현구, 『高麗政治史論』, 고려대출판부, 2004.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3, 1993.
용인시, 『용인의 불교유적』, 2001.
柳在城, 『對蒙抗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尹龍爀, 『高麗對蒙抗爭史硏究』, 一志社, 1991.
_____,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_____,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姜在光, 「1250-1270年代 神義軍의 對蒙抗戰과 政治活動」,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231-281면.
_____, 「對蒙戰爭期 處仁城勝捷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廣州道 방어 및 部曲民·僧徒의 항전과 연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3, 한국중세사학회, 2018, 225-259면.
_____, 「1259년 삼별초의 춘주(春州) 천곡촌전투(泉谷村戰鬪) 승전과 그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 121, 한국역사연구회, 2021, 177-213면.
김남규, 「高麗 兩界兵馬使에 대하여」,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143-163면.
金塘澤, 「元干涉期 高麗 國王의 入元經費(盤纏)에 대하여」, 『吉玄益敎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96, 411-472면.
金昌賢, 「고려시대 승병의 성격과 역할」, 『동국사학』 59, 동국사학회, 2015, 75-116면.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金允侯將軍의 3次例 勝戰의 意義」, 『白山學報』 114, 백산학회, 2019, 121-153면.
박종기, 「원간섭기 사회현실과 개혁론의 전개」, 『역사와 현실』 49, 한국역사연구회, 2003, 67-98면.
尹龍爀,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특히 廣州民과 處仁部曲民의 抗戰에 주목하여—」, 『韓國史硏究』 29, 한국사연구회, 1980, 53-73면.
이익주, 「원간섭기 개혁정치의 성격」,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229-243면.
_____, 「고려—몽골 전쟁 초기(1231-1232)의 강화 협상 연구」, 『韓國史硏究』 180, 한국사연구회, 2018, 1-31면.
이인영, 「몽고침입과 처인성 승첩에 관하여」, 『읍치와 성곽』, 민속원, 2010, 41-66면.
周采赫,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 전쟁」,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71-101면.

차용걸,「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23-66면.
채웅석,「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역사와 현실』49, 한국역사연구회, 2003, 99-124면.
최규성,「제5차 여몽전쟁과 충주산성의 위치 비정」,『상명사학』6, 상명사학회, 1998, 1-22면.
崔鍾奭,「대몽항쟁・원간섭기 山城海島入保策의 시행과 治所城 위상의 변화」,『震檀學報』105, 진단학회, 2008, 37-71면.
허인욱,「高宗代 '花山 李氏' 李龍祥의 高麗 정착 관련 기록 검토」,『白山學報』100, 백산학회, 2014, 423-456면.
홍민호,「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한국사연구』193, 한국사연구회, 2021, 127-173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忠州邑城 學術調査報告書』, 2011.

【Abstract】

Strategy and Leadership of Kim Yoonhu (金允侯) throughout Fighting against Mongol

Kang, Jae-Gwang*

Kim Yoonhu who was a chief of warrior monks, killed Sartai (撒禮塔) who was the general of Mongol army at the Cheoinseong (處仁城) battle in 1232. He leaded to supervise Cheoinbugokmin (處仁部曲民) and warrior monks. Specially, he succeeded in killing the enemy's chief throughout correct sight gunnery of archers. After 20 years, as Chungjusanseongbanghobyulgam (忠州山城防護別監) Kim Yoonhu carried out Chungjuseong (忠州城) battle. At this battle, he defeated Mongol army under the control of Great King Yago (也古) who was a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of Mongol. At that time, he burned slave ownership paper of Chungju (忠州) and promised the liberation of status of slaves in government employ (官奴). As the result, will to fight of Chungju people was raised largely and finally could hold victory. In 1259, he was sent to Donggye (東界) as Dongbukmyunbyungmasa (東北面兵馬使), and contributed indirectly to victory of Hankyesanseong (寒溪山城) battle and Cheongokchon(泉谷村) battle, by dispatching Sambyulcho (三別抄) units in time.

Kim Yoonhu's leadership in the fighting against Mongol is summarized like this. The first, though outstanding military service, he did not desire military officer of high rank, and showed incorruptible personality. The second, he made the best use of persons that had military talent, without regard to estate. Also he awarded a prize to men of merit. The third, he was a military strategist as well as commander that had established strategy against Mongol systematically. The fourth, he did not flatter to military ruler, and only devoted for revival of Goryo dynasty, cessation of the war against Mongol, and recovery of the livelihoods of the public.

Keywords: Kim Yoonhu(金允侯), leadership, fighting against Mongol, Cheoinseong(處仁城) battle, Chungjuseong(忠州城) battle, military strategist.

접수일: 2022.06.24.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2.

* Senior Researcher, Division of Encyclopedia Compil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